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
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526호

서기 2005년 5월 18일
(음력 4월 11일) 수요일

17

법공양 페이지

모든 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 스님, 낙태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스님: 아주 간편하게 그냥 낙태라고 한마디
로 해버리네! (대중 웃음) 사방에 불어 들어오는
게 낙태인데. 허 참! 허허허, 이거 봐요, 낙태를
한 번 시키려면 그 영혼 자체가 인간으로서 화
했을 때 어떤 영혼이 어디에서 왔나를 알아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집안 조상들은 어떤 문제의
연관을 가졌나, 이것을 알아야 대처를 해요. 그
렇기 때문에 낙태를 지금 산부인과에서 한다지
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크나 작으나 많으나
적으나 그 수효가 따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
약에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낙태를
시킨다면은 그거는, 즉 말하자면 물질적인 형상
은 낙태를 시키고 그 영혼은 건져서 자동적으로
다시 재생이 돼나가니깐요. 용광로에 넣으면 무
조건 녹아서 모두 가공돼가지고 저절로 생선이
돼서 나간다. 이런 거를 아니까 용광로에다 다
넣거든요. 용광로에다 다 넣는다면 그냥 자동적
으로 생선이 돼서 나오요. 생선이 돼서 나갈 때
어떤 걸로 나가느냐가 문제죠. 즉 말하자면 용광
로가 금의 용광로나 무쇠의 용광로나, 여기에 따
라서.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차원이 다 있습니다. 없는

돼버려요. 그런 자동적이예요. 오신통 자체가 컴
퓨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최로 재생이 돼서 나가죠. 또.

사람들이 많고 많아도 차원이 다 있습니다. 다
얼굴이 다르듯이. 요만큼도 똑같은 거는 없어요.
묘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를 방편
으로 했으면 천차만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공부하셔야 됩니
다. 생명을 건다고 해서 뭐 금방 죽을 거 살아나
고, 금방 살아날 게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을 사람
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았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녀도 죽더라, 이러한 마세요. 허허허, 그러
니까 죽고 사는 거 개이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
시오 낙태라는 것도 그러한 요소요소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낙태에 대해서 한마
디 또 할 게 있는데,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산 목숨을 죽인다 이럴 때는
주인공에다 놓고 하면 무명을, 그 집승의 무명
을 벗겨주고 사람으로서 한 활나에 되는 겁니
다. 한 활나에 사람의 용광로로 들어가서 재생
돼서 사람으로서 환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런데 그냥 그렇지 않고 마음공부를 아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생명을 그냥, 그걸 건지지도 않고, 둘 아니게

그냥 죽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 짐승
을, 산 것을 사다 먹지 마라, 산 것을 사다 먹지
말되 죽은 것도 네 살로 생각을 해라, 주인공에
다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인공,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라. 채소들을 끊어서 먹
는 것도 생명을 죽이는 거지 생명을 안 죽이는
겁니까? 그러나 연쇄적으로 먹고 살게끔 다 돼
있는 것이니 차원이 아주 낮은 거는 높은 놈한테
잡혀 먹히게 돼 있어요. 진리가 그렇게 돼 있
니깐요. 그러되 내 생명으로 알아라 이거죠. 그
럼으로써 모든 걸 빨리빨리 진화시킬 수 있고,
빨리빨리 회할 수가 있고, 빨리빨리 창조력의 자
유스러운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도 않는데, 자기한테 아쉬
움도 없는데 포수가 나가서 총질을 한다거나 낚
시질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죽일 필요가 없죠.
반드시 두 가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가 있어요.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죽인다거나 이런다면 반드시 주인공에 일임하고
서 그대로 하셔야 그 무명이 벗겨질 수 있죠. 그래
첫째는 무명을 벗겨주니까 자비고, 또 그 실은 약
으로 대처를 하니까 자비고, 전부 다가 더불어 같
이 자비다 이 소립니다.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살상이 되고 인과응보가 되고 업보가 되는
겁니다.

▲질문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전
생애 배운 공부, 예를 들면 역사나 외국어 실력 같
은 것들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다면 다시 그 공부
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율곡 선생
님은 태어나서 우는 소리가 곧 읽는 소리로 들렸
다고 그러고, 또 일곱 살 때 시를 지은 것을 보면
전생애 공부한 것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것 같거
든요. 그런데 전생애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다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이 생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스님: 부처님께서 전생으로부터 부처님 될
이름을 타고났다 이랬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했
소? 허허허, 이거 봐요, 무(無)의 세계에서 아무리,
전생애 유(有)의 세계에서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바로 탐은 쌓아야 탐이죠. 예를 들어서 다 알아
도 다시 한 번 방편으로 나와서 그 길을 더 멋지게
걸어야 돼요. 얼른 쉽게 말해서 더 고생을 해야 돼
요. 더 그거를 열심히 해서 보여줘야 모든 사람의
마음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지, 아니 보여주지 않
는데 어떻게 한마음이 될 수 있겠소? 그러니까 울
곡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소? 석가모
니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생애 배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소?
이런 게 있죠. 전생애 다 알고 했으면 그만큼 지혜
가 넓고 물리가 터져서 그냥 하나를 보면 벌써 열
가지까지, 벽을 치면 붓장까지 울린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이 공부를 못한다 뭐
어려다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과거는 지나갔으니
깐 없다. 과거의 업보를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과
거의 업보는 내 몸속에 다, 여러분이 악업 선업 모
자라는 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까 그저 내가 살면서 닦치는 대로 그냥 거기다가
놔라!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되놓는
거죠. 그래야만이 앞서의 입력된 게 없어지거든
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멀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어
저께도 내가 탄생하기 이전과 똑같다 이겁니다.
거리가 가깝고 멀고 가 없다! 일 초 전만 하더라도
과거예요. 벌써,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우주하고
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전체가 가설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느끼지 못하겠결랑 공부
열심히해 해요. 아무런 전지가 잘 쌓아졌던 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애 다시 탐이 쌓아져야 더 슬,
전지에는 오줌 탐이있었는데 심이춤 탐으로도
잘 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구니까 다 쳐다보
게 다 알고, 다 배우고, 다 보고 그래야만이 한마
음이 돼주지, 보여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
는데, 그거는 목석인가요? 오히려 전지가 일었다
고 할 수가 없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라고 최
초에 나와서 이름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사
람이든지 다 깨우치면 부처입니다. 허허허, 그래
서 부처가 꼭 앵초.

▲질문자: 육신의 근본 뿌리가 있음을 알려주

신 스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
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내는 도리, 무선통신에
대해서 누차 감로법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무지의
탓으로 다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신목의 계절
에 산불로 인해 산이 험뵈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골 다가오는 태풍으로 인한 물난리와 3월 29일과
4월 10일에 있었던 조계종 법단 사태에 대해 역대
조사 스님께서는 현존해 계시는 부처님께서는 마
음 도리로서 협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지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그러한 천
재지변이나 그러한 사태에 마음을 내야 될지 가
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그
냥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
예요. 한 치도 이거는 벗어날 수 없이 살고 있는 겁
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자유스럽게 사는 게 아니
예요. 우리는 공기주머니를 한 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반면에 모든 걸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치는 그런 것을 다 순
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크게 그릇이 돼
라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대처를 다 할 수 있고 그
런 거죠.

▲질문자: 그런데 산불이나 그런 사태가 벌어
졌을 때 저희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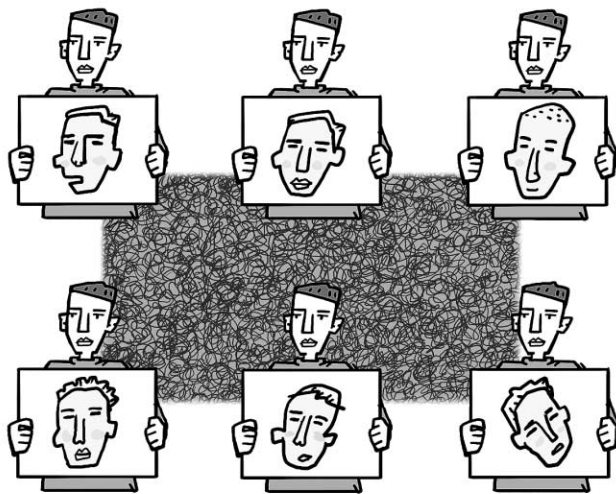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저 내가 살면서 닦치는 대로 그냥 거기다가 놔라!



그림 · 최주현

게 아닙니다. 역력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
에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이유가
있죠. 말을 하면 아니 되니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태라는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낙태를
한다 하더라도 첫째는 물질세계에 사는 사람의
그 실을 위해서, 둘째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셋째는 내가 넓혀서 지혜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
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삼합
이 맞아야 되듯이 모든 걸 거기다 놓고 가만 공부
가 완전히 된 사람은 금의 용광로일 때, 금 용광
로에 넣어도 브로치가 되느냐, 목걸이가 되느냐,
반지가 되느냐, 귀걸이가 되느냐의 문제가 또 있
죠.

그런데다 습이 덜 떨어지고 참 도리의 완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갈팡질팡하는 사
람은 그것이 금 용광로가 아니라 무쇠 용광로가

건지지도 않고 그냥 생명을 죽이니까 살상이 되
는 겁니다.

낙태시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뱀 한 마리를 죽여도
꼭 그렇습니다. 이거는 요만큼도 예누리가 없습
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죽였어도 예누리가 없
는 겁니다. 개구리도 자기 어미를 알고 자기 애
비를 알고 자식을 알고, 우리의 똑같은 살림살
이를 하고 있는 거고 마음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원인이 없었습니다?
식구들을 다 때려죽여 보세요. 거기에 언제든지
두고 보자 하는 그 마음이 철렁잡이 들어있을
겁니다. 아아.

그러니까 낙태시키는 것도 이런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문제가 되어지죠. 정말입니
다. 또 짐승이나 어떠한 고기를 들어서 잡아서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고 그냥 되놓아야 한다!

▲스님: 이것은 그대로 진리에 순응하는 일이
죠. 그대로. 사람들이 넓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
니다. 오는 게 없으면 가는 게 없듯이, 우리가 그
런 거를 다 불상사라고 하지만 그게 불상사가 아
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태양열과, 즉
온기라고 합시다. 그 온기가 밀 물 찬 데까지 서로
대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고 또 그 소용
돌이가 차지 않는다면 위의 것이 못 살고 아래 게
못 삽니다. 그래서 밀의 게 위로 올라오고 위의 게
밀으로 내려가야만이 같이 먹고 삽니다. 서로 주
고 서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 더불어 모든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물도 사는 거지 생명들이
이 살아나가는 데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들뿐
만 아닙니다. 물에서 사는 거든지 들에서 사는 거
든지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산
에서 풀을 다 태우는 일들은 곤충이나 모든 생명
들이 다시 새 뿌리 새 씨가 나와서 다시 먹게 하기
위한 도리도 됩니다. 이 모두가 천연적으로 자연
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
구가 잘못해서 불이 났다, 이리키보다는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러면 태풍이 와서 사람이 많이 죽는데 그거는 어
떤 일로 그러냐 이러겠지만 넓게 본다면 그거 역
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아들을 데려갔
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도 슬모가 있기 때
문에 외아들을, 외아들이고 아니고 간에 슬모가
있기 때문에, 다시 대처해서 다시 내보낼 자리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마음 도리로 어떻게 산
불을 좀 끄게 해달라는 그 한마음을 사실상 주인
공 자리에서 맡깁니다. 맡기면서 갈 수만 있으면
차로 가서 불을 좀 켜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
서 말썽드립니다.

▲스님: 그거는 그것대로 인간세계에서의 마
음들이겠죠. 그러나 곤충까지도 살리는 게 못 되
고, 마구 이렇게 하면 상당히 피폐해지고, 생명
들 생체가. 그러니까 한 번씩 그렇게 해줌으로써
살 수 있는 기반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고
요. 타 죽는 게 있다 하더라도 타 죽는 게 아니고
진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그 겹메기가 죽
었다고 그래서 속의 씨까지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두
가지 여건이 있겠죠. 태워서 안 될 게 있고 태워
서 될 게 있고, 꺼서 될 일이 있고, 안 꺼도 관중
을 일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처해서 끝 아니라면, 아주
시급하게 끝 아니라면 비가 오게 하시면 돼요.

▲질문자: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
의 사견에 대한 스님의 정견을 듣고 저의 마음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 법형제 법회 때, 법
형제 행남께서 나오신 지 며칠 안 되신 분입니
다. 스님을 친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친견을
해야 되며 정성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제
가 제 나름대로, 이권 또 말을 잘못하면 누가 되
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 생각대로 말
18면으로 계속

진짜로 싹은 제 뿌리를 믿어야 합니다!

17면에서 계속

숨을 드렸습니다. "일단 스님을 뽑고자 하는 지극한 마음이 있으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성금을 스님께서는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고 행님의 마음을 보시니까 일단 마음에서 마음에 넘쳐서 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되지 않는 금액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니가 일단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 5월 1일, 법형제 법회 때 공교롭게도 정성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성금 금액을 정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이러한 자리를 빌려서 스님의 정견을 들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까지 정해졌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짐사람한테 듣는 이야기로는 스님께서는 금액이 많은 적든 정성금이 일단 오는 것 같으면 필요한 사람한테 도로 빌려서 온 것 같으면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에 그 정성금을 도로 돌려주시고 또 그마저도 사양할 때는 그 마음만 받으신다는 걸 제가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해졌을 때는 잘못하면 큰 누가 될 것이다. 그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스님께서 정성금에 구애치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그러면서도 저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 혼자 수습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최소스럼하게도 두 차례 전집을 했습니다. 저번 달에 한 것까지 세 차례 했습니다만 저는 정성금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스님께 제 나름대로 올리고 싶은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언젠가는 과자 값으로 드러나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해놓고 있었는데, 저번 달에 제가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기 위해가지고 어려운 일에 부닥쳤습니다만 그 일이 허가를 받게 되는데 한 5%에서 10% 정도로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여 허가를 못 받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또 친견을 했습니다. 친견하면서 조그만 저의 마음의 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에 들어갑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지금 말씀을 길게 하셨으니까 한번 짧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또 누가 물결랑은 그러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하하. (대중 웃음) '적게 하든 많게 하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굳이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만 되면 꼭 시주하겠다는 금액을 자기네들 마음으로 정해놓고 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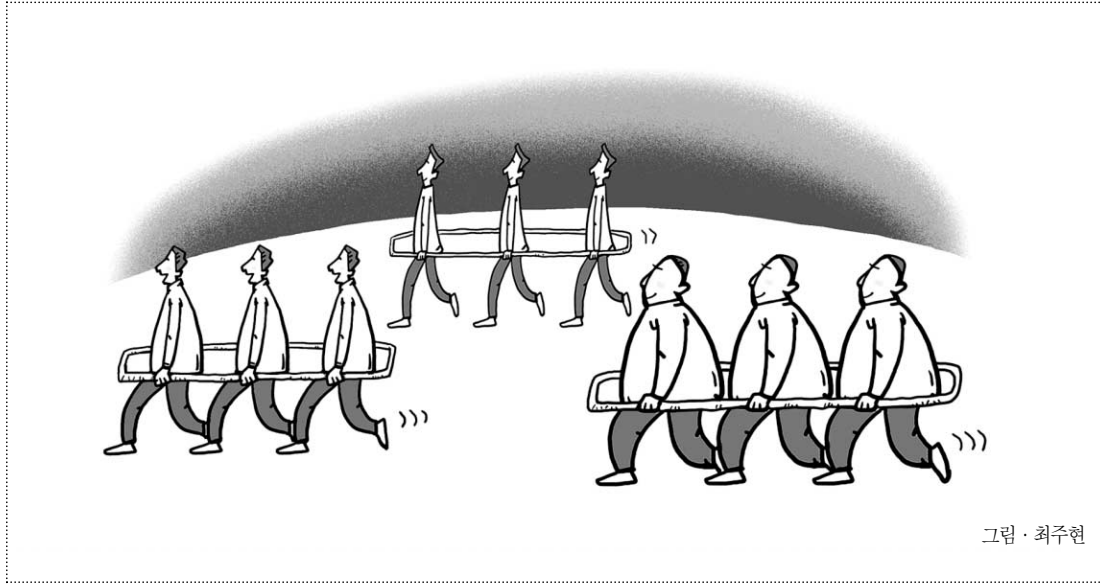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전부가 다 한 사람이고 한 국민

말입니다. 그런 건 대체적으로 없지만, 그런데 드문드문, 처음 오셔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그제 했는데도 그거를 안 한다 이거죠. 이러면 그거는 됐다 하더라도 판 계 문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얼른 쉽게 말해서 남의 물건은 가져가고 물건 값을 안 갚으니까 그렇단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지 마라 이 거예요. 단 하나 있다면, 그 저 잡되면 자기 마음으로, 잘되면 어떡하든지 불사도 하고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다만 얼마라도 자기가 새 돈으로 정성껏 담아서 하면 대치가 될 것을, 그냥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고생하는 여러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도 그렇게 굶어서 부스럼을 만들어놓고 죽겠다고 옵니다. 이거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길잡이 노릇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옛날부터 사람 셋 끌고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던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스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질만 마음대로 하라

고 이렇게 하세요. 자기네들이 크면 크 대로 작은 자는 대로, 자기네들이 할 일이지!

▲질문자3: 저는 설악산 기슭에서 왔습니다. 여기 다니는 신도님께서 『한마음』이라는 책자를 보내줘 가지고 그걸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만날 여기서 한 번이라도 와서 법회 하시는 걸 듣고자 수없이 별렀는데 오늘 처음 와서 스님을 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의문되는 점은 저의 손녀딸이 지금 두 살인데요, 구개열이라고 입 천장이 열려가지고 지금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언어장애가 될 것을, 그냥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고생하는 여러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님: 진리의 뜻에서 보면 어리고 높고 이런 게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자기가 과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자기 몸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觀) 하라고 할 때, 모든 것을 용광로에다가 녹여 이

런 겁니다. 그렇게 그 모든 걸 일임시킨다면 앞서의 인과응보가 무너지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더라도 그 언어의 지장이 없도록 관하십시오. 관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진짜로 싹이 제 뿌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싹은 제 뿌리로 인해서 사는 거니까 싹이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에 모든 걸 맡겨졌을 때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무나 없다고 말겨졌을 때 바로 몸속에서 모든 의식들이 모자라는 걸 채워주고 작용을 해줍니다.

▲질문자3: 그 길을 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스님: 예, 그러니까 관하는 거를 똑바로 스님네들한테 들어서 가세요. 내가 '어쭈워서 가세요.' 이러려고 그러다가 그냥 '몰아서 가세요.' 이랬어요. 이게요. '몰아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어쭈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 하면, 정말 그 한마디에 일생 동안을 맡아 장애가 올 거를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대처만 된다면 든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쭈워라고 할 수밖에요.

여기 우리 스님네들이 금덩어리입니다. 신도님들도 금덩어리고요. 금은 금방에 모두 모이

죠? 무쇠전에 모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우린 금이고 탄 사람은 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금은 금인데, 다 금인데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무쇠도 되고 텨도 되고 그렇죠.

▲질문자4: 저는 광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작년에 해남, 장흥 그쪽으로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산 곳곳이 굉장히 민둥산이 되어 있고요, 소나무가 전부 다 빨갭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스님께서 광주 대법회 때 오셔서 가지고 운주사에 가셨을 때도 제가 뒤에 같이 따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소나무들이 곳곳에 많이 죽어 있어서 뒤에 가면서 '스님께서 저절 보시고 한마음 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텔레비전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국 각지에까지 다 그 병이 번져가지고 경관도 다 해치고 몇 십 년 된 소나무들이 다 죽어가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스님: 그것은 나라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옛날부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국보나 다름없다 하는 이야기요. 사할 사는 거기 때문에 소홀히 볼 수 없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사할나무도 되고요. 그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것은 아주 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떠한 문제가 좋지 않다 좋다를 떠나서 소나무가 더 빨리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는 돌장승도 알고 있다. 돌장승도 알고 사람들도 전부 거죽으로는 모르나 속의 근본은 다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마음들이 서로 그렇게 해서 통신이 돼서 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라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전부가 다 한 사람이고 다 한 국민이죠. 다 같은 마음들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예전부터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누은 부처님을 보고서 내가 얘기해드렸지만은 그 누은 부처는 누은 부처가 아니고 앉은 부처도 아니고 선 부처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말한 거를 뒤로 돌려서 다시 똑같이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여튼 열심히 잘 관해서서 일체가 다 마음들을 잘 쓰도록 이렇게 합시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80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고품격 정수 발효식품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 **山寺 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 **山寺 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정수 발효식품입니다.
- ◆ **山寺 조청** 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이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 **山寺 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꽃 조청**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1.2kg

山寺 청미래 조청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시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1.2kg

山寺 기청당 조청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1.2kg

山寺 약도라지 조청
 기관지, 천식, 기침, 가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1.2kg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이것이 명품이다!

연중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접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생요소준점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통시스템을 갖춘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를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보세요.

〔祝〕 : 현풍 토종심마니오가피 국내최초 여자프로 권투단 창단 (주)현풍은 세계 주니어 플라이트 챔피언인 김주희 선수와 여자프로 유망주 손초롱 선수의 4명으로 출범한 현풍 프로권투단은 한국프로 권투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국산토종오가피 목욕분양 및 상담** ※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풍F&B HYUNPUNG F&B CO., LTD.**